

목포서 국내 1호 전기추진 선박 첫 공개

오늘 진수식...세계 최초 차량 형태 전원공급시스템 탑재 270조원 규모 친환경 선박산업 선점...성장 원동력 기대

대한민국 제1호 전기추진 선박이 4일 진수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인다. 차도선 형태의 전기선박의 실물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모두 4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양수산부의 '전기추진 차도선 및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은 목포시와 인근 도서를 운항하는 차도선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발 및 실증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차량 형태의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이 탑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은 14개 민간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교가 공동 참여해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2020년 4월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강재절단식을 거쳐 건조된 전기추진 차도선은 420t으로 길이는 49m, 승객 125명과 차량 20여대를 선적할 수 있는 규모이다.

현재 도장도포 마감공정을 완료하고 대불산단 건조장에서 삼진산단(유일) 전용부두로 예인·이동 후 진수식을 위해 접안 대기 중이다.

전기추진 차도선은 진수식 이후 전기추진시스템 탑재 등 후행 공정을 거쳐 앞으로 해상에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등 세부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친환경선박산업은 남향 부지에 관련 기업, 연구소,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 조성이 큰 틀이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451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415억원) 등 국가 공모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교육기관의 유지 협의 또한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남향 부지 약 3만2500㎡에 친환경선박 연구 인프라 구축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목포서 첫 선을 보일 대한민국 제1호 전기추진 선박 측면부. <목포시 제공>

시는 향후 25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된 다부처(산업부, 해수부) 예타사업인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남향에 유치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기추진 차도선의 진수식은

27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친환경 선박산업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목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선박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귀농·귀촌인 영농교육 영암군 11일까지 40명 모집 22일~5월 24일 주 1회 실시

영광군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기초 기술교육을 진행한다.

영광군은 '2022년도 상반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생' 40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가 연간 2회 운영하는 해당 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하며 매주 1회 화요일마다 4시간씩, 총 10회(40시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농촌의 이해와 성공적 귀농설계', '토양관리', '미생물의 활용', '딸기·고추·양파 등 작목별 재배기술' 등이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과 새내기 농업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350-55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준윤 기자 jylee@kwangju.co.kr



그리움 담아 하늘에 띄우는 편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우체통 설치...추모 글 모아 책자 발간 예정

해남군이 남도광역추모공원에 고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편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우체통'을 설치·운영한다.

한울원과 봉안당 2개소에 설치된 우체통은 추모의 글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유가족들이 고인을 그리운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편지와 펜은 우체통 앞에 비치돼 있으며, 우체통의 글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책자 등으로 발간해 추모의 마음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추모공원을 찾는 유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써서 봉안당 바닥이나 안치단에 두고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글들이 훼손될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늘나라 우체통을 통해 고인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고, 추모의 글을 함께 나눔으로써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완도·진도 3개군이 연계 협력으로 지난 2019년 4월 개원했다. 화장로 4기와 한울원을 비롯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유력동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암태도 소작쟁의'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신안군 "유공자 발굴 박차...항일농민운동 정신 계승 노력"

신안군은 암태도 소작쟁의의 참여자 4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애족장 1명,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 독립운동가 서태석과 박복영이 주도한 항일농민운동이다.

일제의 약탈지주에 맞서 소작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대규모 소작쟁의의 시발점이 된 역사적인 농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항일농민운동 재조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해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기초자료 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서훈 신청 등 독립유공자 발굴·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삼일절에 4명이 서훈되면서 지난해 20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신안군 관계자는 "올해는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일제의 불의에 맞선 숭고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도록 다양한 선양사업을 펼쳐 항일농민운동 정신 계승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는 항일농민운동 관련 123명의 수감기록을 찾았으며, 지난해 12월까지 후손과 연락이 닿은 17명 등 현재까지 43명을 서훈 신청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고구마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무안군이 지역 특산물인 무안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수산물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무안은 전국 최대의 유기농 고구마 주산지로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무안의 고구마는 해풍이 싹고 온 염기와 게르마늄, 유효성분이 풍부한 황토

에서 자라 전분함량이 높고 식감이 좋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현재 무안군에서는 관내 130여 농가가 967ha 면적의 농지에서 연간 약 1만 6000t이 넘는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 고구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아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활용한 2차 가공품, 3차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고구마 재배농가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지리

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중에는 대상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협의 과정과 전문가도움을 받아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조사연구, 등록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무안고구마 지리적표시를 정식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무안군 농정과장은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으로 무안고구마의 명칭을 권리와, 차별화함으로써 무안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품질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옛 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명칭 선호도 조사

시, 6일까지 256건 시민 투표

목포시가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명칭 선정을 위해 선호도 조사를 한다.

목포시는 지난달 18일부터 7일간 목포의 맛과 관광, 역사, 문화 등의 콘텐츠를 담아 새롭게 재탄생할 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부각할 명칭 공모를 했다.

공모 결과 총 270건의 제안 중 중복, 설명 미기재 등을 제외하고 256건에 대해 시민 투표를 할 계획이다.

시는 세관창고가 목포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장소인 만큼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제안부터 선정까지, 시민들의 의견과 뜻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선호도 조사는 목포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참여/민원→시민참여→사이버 설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선호하는 명칭 5건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14일 발표하며 당선작에 100만원 을 시상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